01 3 · 1절 행사 군악대 모습(1952년)



休 2

기록으로 보는 의식곡 & 기념곡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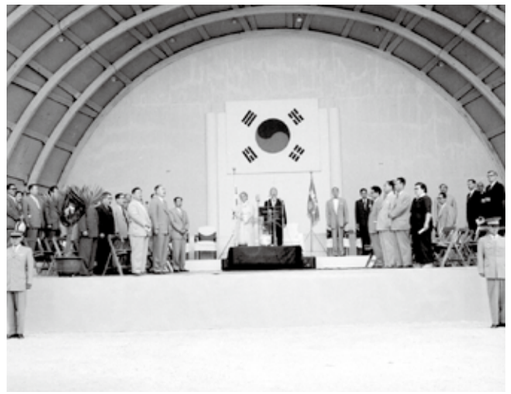
글. 왕성상 (아시아경제신문 본부장)

의식곡은 공동체 정체성 확인, 발자취 기려
기념노래, 축가 등 부르며 의미 되새기고 분위기 띄워

우리들 삶엔 기념일, 행사들이 많다. 그런 날엔 음악이 빠지지 않는다. 기념노래, 축가, 조가(弔歌), 의식곡 등을 부르며 의미를 되새기거나 분위기를 띄운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발자취도 기린다. 이들 노래의 상당수는 현대사에 한 획을 그은 문인 · 학자 · 예술인 · 문화운동가들이 힘을 쏟아 만든 '작품'들이다. 올해는 광복 70주년, 현충일 제정 60주년, 발명의 날 50주년이 된다. 기록을 통해서 본 의식곡과 기념곡들의 발자취와 현주소를 들여다본다.

국가기념일은 3가지(절, 일, 날)로 나뉜다. 절은 전통적으로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며 즐기는 명절의 준말이다. 일은 명절 · 국경일 등을 이르는 명일(名日)의 줄인 말이며, 날은 명일을 우리말로 쓴 것이다. 광복절, 개천절은 광복명절과 개천명절의 준말이다. 식목일, 현충일은 식목명일과 현충명일을 줄인 말이다.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에서 날은 명일과 같은 뜻이다. 명일은 더 넓은 의미를 가진 용어다. 명절, 국경일 등 어떤 행사나 기념할 만한 이름을 가진 날이란 뜻이다. 우리나라 기념일 중 공식적으로 절이 붙은 날은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이다.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절이 됐다. 온 국민이 즐기는 추석을 중추절, 세계적 축제인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이라고 한다. 절이 붙는 날의 공통점은 기념할 만한 즐거운 날이다. 일이나 날이 붙은 기념일들은 기쁜 날, 슬픈 날, 일상적인 행사를 하는 날이 섞여있다.

토 · 일요일을 뺀 우리나라의 한해 공휴일은 노동절을 합쳐 17일이다. 노동절은 근로자들만 쉰다. 4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과 기타 공휴일(명절, 기념일 13일)에 쉰다. 신정(1월 1일), 설날연휴(음력 12월말일~새해 1월 2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현충일(6월 6일), 추석연휴(음력 8월 14~16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이 공휴일이다.



02 6 · 25의 날 기념행사 애국가 제창 모습(1956년)

지난 5월초 '국가기념일 기념곡법' 국회 발의

이와 관련, 지난 5월초 정부가 국가기념일 의의를 담은 기념곡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가기념일 기념곡법)'을 동료의원 38명과 함께 발의했다. 기념곡 지정절차, 기념일행사 때의 기념곡 연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의 자의적 개입도 막자는 것이다. 정부는 2013년 6월 27일 '임을 위한 행진곡' 5 · 18 기념곡 지정촉구결의안(강기정 의원 등 56명 발의)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음에도 기념곡 지정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 왔다. 국가보훈처는 2009년부터 정부 주최 5 · 18민주운동기념일 공식행사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식순에서 빼거나 제창이 아닌 합창단의 공연형태로 진행, 일부 반발을 샀다. 올해 제67주년 제주 4 · 3사건 희생자추념식 때도 4 · 3사건의 대표적 노래로 꼽히는 '잠들지 않는 남도'와 '애기동백꽃의 노래'가 공식행사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다.

광복 후 국권을 되찾자 우리나라 제도와 문물을 손볼 때 의식의 노래들도 새로 만들어졌다. 노랫말은 최현배 선생의 한글노랫말을 제외한 전체가사가 위당 정인보 선생의 작품이었다. 작곡엔 그 무렵 잘 나갔던 작곡가 이흥렬(새해의 노래), 박태준(제헌절 노래), 윤용하(광복절 노래), 김성태(개천절 노



03 6 · 25항공총궐기일 기념행사 국민의례 모습(1952년)

래), 박태현(한글날 노래) 선생들이 참여했다. 이중 박태현 선생 작곡의 '삼일절 노래'가 당시 작곡에 참여한 사람들의 품평회 때 최고명곡으로 꼽혔다.

애국가

의식곡에서 가장 먼저 꼽히는 건 애국가다. 국민의례 때 빠지지 않는 우리나라 대표 공식노래다. 애국가는 1896년 무렵 각 지방에서 불린 노래만도 10여 종류에 이른다. 노래를 만든 사람에 따라 달라 곡조를 잘 알 수 없다. 배재학당 학도들이 부른 '애국가'는 스코틀랜드민요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 곡조를 따서 부른 것이다. 1898년 무관학도들이 부른 '애국가'는 영국국가인 '신이여 황제를 보호하소서(God save the king)'의 가사내용과 곡을 가져다 쓴 것이다. 증보문헌비고의 '대한애국가'도 무관학도들이 부른 '애국가'와 같다. 애국가가사의 주 내용은 자주독립, 문명개화, 부국강병, 신교육 등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 전에 '올드 랭 사인'곡에다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붙인 애국가가 자주 불렸다.

'애국가'의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후렴구는 1896년 11월 21일 독립문 정초식 때 배재학당 학도들이 부른 '애국가'에서부터 나온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 전까지는 '올드 랭 사인'에 이 가사를 붙여 불렀으나 그 뒤부터는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가 불리고 있다. 안익태는 1936년 독일 베를린에서 '애국가'를 작곡, 그해 베를린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단을 찾아가 함께 불렀다. 상해임시정부와 미국, 일본 등지의 교포들에게 악보를 보내 불리기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식국가로 채택됐다. 모두 4절의 가사로 된 16마디의 4/4박자 곡이다. 작사가는 확실치 않으며 윤치호, 안창호, 민영환 등이 지었다는 설이 있다. 그 중 '윤치호 설'이 신빙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목포의 눈물' 이난영, 삼일절 기념공연 후 별세

삼일절의 노래

4대 국경일 중 삼일절엔 '삼일절의 노래'를 부른다. "기미년 3월 1일 정오~"로 나가는 이 노래는 정인보 작사, 박태현 작곡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운다. 삼일절 관련 에피소드로 목포출신가수 이난영이 1965년 봄 서울시민회관(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념공연 때 마지막 무대에 오르고 한 달여 뒤인 4월 11일 새벽 49세로 세상을 떠났다는 점이다.

1916년 이옥례란 이름으로 목포에서 일제강점기 활동가수 중 가장 많은 노래를 발표했고 인기짓대라 할 수 있는 개인걸작집 음반을 낸 가수 8명 중 한명이다. 일제강점기 때 취입한 '목포의 눈물'의 가사(삼백년 원한 품은 노적봉~) 때문에 작사 · 작곡가가 일본경찰에 불려가 문초를 당했다. 조사과정에서 가사가 고쳐지긴 했으나 이 부문의 숨은 뜻은 우리민족의 한을 얘기하고 있다. 일제강점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일본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이슈들에 빗대어 담아냈다. 1592년 임진왜란 때부터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강제병합으로 나라가 쓰러질 때까지의 300년 한을 나타낸 것이다.



04 제20주년 제헌절 기념식 행사 모습(1968년)

제헌절의 노래

'제헌절의 노래'는 정인보 작사, 박태준 작곡으로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 · 공포된 것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나온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국경일이다. 당초 '헌법공포일'이었던 명칭은 법률제정과정에서 '제헌절'로 바뀌었다. 기념식은 처음엔 행정부가 주관했으나 1988년 제40주년 기념식 때부터 국회가 열고 있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관련 기록들을 볼 수 있다. 1949년 4월 12일 제40회 국무회의 때 "국경일이 정해지지 않아 외교관계에 곤란함이 있으니 빨리 제정하라"는 대통령 유시에 대해 기안검토 중임을 보고했다는 내용의 국무회의록이 나온다. 중앙청광장에서 열린 제5주년 · 10주년 기념식,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0주년 기념식,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40주년 기념식까지 다양한 행사광경도 볼 수 있다.

광복절의 노래

'광복절의 노래'는 정인보 작시(作詩), 윤용하 작곡으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기리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음악교과서에 실렸다. 1950년에 만들어진 이 노래는 기쁨과 감동이 넘친다. 우리나라 의식의 노래들 중 이 곡만큼 가사와 멜로디가 잘 어우러지는 곡을 찾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 하리~"란 너무도 슬프고 안타까운 구절, 즉 광복을 꼭 보고야 말겠다던 어른들과 벗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구절이 절절하게 다가온다. 1958년 만들어진 '광복절의 노래' 영상물이 국가기록원에 있다. 서울방송합창단이 부른 것으로 서울방송교향악단 반주, 임원식 지휘로 흑백영상이다. 광복절은 1949년 제정된 국경일로 처음엔 '헌법공포일', '독립기념일'이었으나 법률제정과정에서 광복절로 바뀌었다. 기념식도 처음엔 정부가 주관했으나 1988년 제40주년 기념식 때부터 국회가 주관했다.

"'광복절의 노래'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기리고 있다. 1950년에 만들어진 이 노래는 기쁨과 감동이 넘친다. 우리나라 의식의 노래들 중 이 곡만큼 가사와 멜로디가 잘 어우러지는 곡을 찾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광복절의 노래

1.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이 날이 사십 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

2.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예서 나리니
힘써 힘써 나가세 힘써 힘써 나가세

개천절의 노래

'개천절의 노래'는 정인보 작사, 김성태 작곡으로 홍익인간이념의 단군조선건국일을 기념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실렸다.

동아일보 1927년 4월 26일자 '어린이날 노래' 실어

어린이날 노래

공휴일 중 5월 5일 어린이날엔 '어린이날 노래'를 부른다. 윤석중 작사, 윤극영 작곡으로 초등학교 3학년 음악교과서에 나온다. 동아일보 1927년 4월 26일자에 '어린이날 노래' 가사가 실렸다. 노래 뒤엔 "곡조는 야구가"라 하여 야구응원가 곡조에 붙여서 부르라는 듯하다. '어린이날 노래' 옆엔 "어린이날 준비 어린이날을 명절로 직히자"란 기사도 보인다. 조선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나 어린이날 만큼은 명절처럼 지내자는 뜻으로 여겨진다. '어린이날'이란 이름으로 기념하기 시작한 첫해는 1923년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그해 '어린이'잡지를 만들고 5월 1일 어린이날을 만든 것이다. 1939년 일제가 금지해 1945년 때까지는 어린이날을 지낼 수 없었다.



05 《동아일보》 1927년 4월 26일자 어린이날 노래 관련 기사



06 제2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모습(1951년)

개천절의 노래

1.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 나라 한아바님은 단군이시니
이 나라 한아바님은 단군이시니

2. 백두산 높은 터에 부자요 부부
성인의 자취 따라 하늘이 텄다
이 날이 시월 상달에 초사흘이니
이 날이 시월 상달에 초사흘이니

3. 오래다 멀다 해도 줄기는 하나
다시 필 단목잎에 삼천리 곱다
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
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

어린이날 노래

1.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2.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어린이 노래'도 있다.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 같이~"로 나가는 이 노래는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실려 있다. 아동문학가 강소천(1915~1963년)이 쓴 노랫말과 나운영의 경쾌한 작곡으로 너무나 유명해 어린이날 의식곡처럼 불린다. 강소천은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심성 함양과 행복을 위해 많은 애를 썼다. 일제 탄압이 심했던 1939년 항일동화인 '돌멩이'를 발표했다. 몇몇 작품들은 꿈과 환상을 통한 치유의 문학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단편동화 '꿈을 찍는 사진관'이 대표적이다. '스승의 은혜', '유관순'의 노랫말도 썼고, 스코틀랜드민요 '올드 랭 사인'에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야~"로 시작되는 우리말 가사를 붙인 주인공이다. '태극기', '코끼리아저씨', '꼬마 눈사람', '나무야', '금강산', '스승의 은혜', '새해의 노래' 등 수십 곡을 작사했다. 올해로 강소천 탄생 100주년을 맞아 '강소천 평전'이 나오고 그의 작품집들이 예전 그대로의 형태로 출간된다.

어버이날 노래

5월 8일 '어버이날'에도 노래가 불린다. '어머니 마음'과 '어머님 은혜'가 대표적이다. 양주동 작사, 이흥렬 작곡의 '어머니 마음'은 회갑연, 고희, 팔순잔치 때 애국가처럼 불릴 만큼 유명하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으로 나가는 이 노래는 가정가요로 3절까지로 돼 있다. 1940년께 발표된 곡으로 자식을 기르기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 마음을 잘 묘사한 아름다운 시가 노랫말이 됐다. 감미로운 멜로디가 어울려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애창되고 있다. 4분의 3박자로 전편이 잔잔하고 평범하게 흐르다가 마지막 8소절 중 앞부분 네 마디의 멜로디는 강력하게 말하는 호소력을 가져 부르는 사람과 듣는 이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윤춘병 작사, 박재훈 작곡의 '어머님 은혜'도 부모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어버이날을 기리기 위한 노래로 초등학교 4학년 음악교과서에 나온다. 어버이날은 해마다 5월 8일 부모 은혜에 감사하고 효사상의 미덕을 기리기 위한 국가기념일이다.



07 어머니날 기념식 합창 모습(1957년)

어버이날이 만들어진 건 사회적 변화와 관련이 깊다. 1956년부터 어머니날을 제정, 기념하기 시작했다. 그 후 1973년 아버지, 어른, 노인들을 포함해 어버이날로 바뀌었다. 어머니날의 유래는 서양에서 비롯됐다. 영국, 미국 같은 기독교국가에서 어머니주일을 지키는 종교적 관습이 있었다. 미국은 1872년 보스턴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어머니날이 제안됐으나 범국가적 어머니날 제정 움직임은 필라델피아 출신 여성인 아나 자비스가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1907년 모친의 2주기 추모식 때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어머니날 제정을 촉구했다. 마침내 1914년 미국 제28대 대통령 토머스 우드로 윌슨이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날로 정하면서부터 정식기념일이 됐다. 우리나라의 어머니날도 기독교단체에서 출발했다. 1930년 무렵부터 구세군가정단에서 어머니주일을 지키기 시작했고 1932년 감리교연합회에서 5월 둘째주일을 부모님주일로 지킬 것을 결의했다. 미국의 기독교 전통에서 시작된 어머니날이 유교적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에 뿌리내리면서 우리 고유의 어머니날로 발전한 것이다. 1973년부터는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까지 포함하는 어른, 노인들을 공경해야 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기념일로 거듭나게 됐다. 어버이날이 만들어진 초기엔 이날을 앞뒤로 일주일간을

경로주간으로 정해 어른공경사상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1997년부터 경로주간이 없어지고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해 행사를 열고 있다.

스승의 날 노래

5월 15일 스승의 날에 부르는 '스승의 날 노래'(강소천 작사, 권길상 작곡)는 참되고 바르게 자라길 가르치는 스승에게 감사함을 나타내는 노래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로 나가는 이 노래는 4분의 3박자로 3절까지 돼있다.

스승의 날은 1958년 충남 강경여자중 · 고의 청소년적십자단(JRC)에서 비롯됐다. 윤석란을 비롯한 적십자단원들이 병환 중인 선생님 위문과 퇴직하신 스승들 위로활동을 했던 게 계기였다. 1963년 청소년적십자중앙학생협의회는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65년 세종대왕탄신일인 5월 15일로 날짜를 바꿔 전국적 기념일이 됐다. 그러다 1973년 정부의 사회정화방침에 따라 모든 사은행사가 열리지 못했다. 스승의 날도 '국민교육헌장선포기념일(12월 5일)'에 합쳐졌다. 이후 1982년 교권확립의 해를 맞아 '스승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됐으며 날짜도 5월 15일로 되돌려졌다. 국가기록원사이트에 들어가면 스승과 제자의 정을 되새기는 발자취들을 볼 수 있다. 한복을 입고 '스승의 은혜'를 노래하는 어린이합창단, 선생님께 큰 절을 올리는 여학생들, 은사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희끗한 머리의 중년남성들의 모습이 이채롭다.

"어버이날이 만들어진 건 사회적 변화와 관련이 깊다. 1956년부터 어머니날을 제정, 기념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기독교 전통에서 시작된 어머니날이 유교적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에 뿌리내리면서 우리 고유의 어머니날로 발전한 것이다. 그 후 1973년부터는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까지 포함하는 어른, 노인들을 공경해야 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기념일로 거듭나게 됐다."

스승의 은혜

1.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 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2.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간들 언제있든 잊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3.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 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해 겨레 위해 일하오리다.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우리의 소원'은 아버지(안석주) – 아들(안병원) 작사 · 작곡

현충일 노래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한 '현충일 노래'도 의식곡에서 빼놓을 수 없다. "겨레와 나라 위해 목숨 바치니~"로 나가는 이 노래는 '지조론'이란 명저를 쓰고 명시 '승무'를 지은 조지훈 선생이 노랫말을 짓고 임원식 선생이 곡을 붙였다. 이 노래는 6 · 25전쟁 휴전(1953년 7월 27일) 3년 뒤인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1145호로 현충일이 제정됐고, 그날 의식곡으로 부르기 위해 만들어졌다. 노래를 작곡한 임원식(1919년 6월 24일~2002년 8월 26일)은 작곡가 · 지휘자로 유명하다. 평안북도 의주에서 독실한 기독교 집안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음악을 접하고 배웠다.

현충일 지정 땐 '현충기념일'이었으나 1975년 '현충일'로 바뀌었다. 1982년 5월 15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공포, 공휴일로 지정됐다. 현충일이 6월 6일이 된 건 우리나라 24절기의 하나인 망종 때 조상께 제사지내던 풍습에서다. 망종은 해마다 6월 5일이나 6일로 제사지내던 우리 고유의 풍속일이다. 현충일 이름은 1707년(숙종 33년) 이순신 장군의 충렬을 살리기 위해 지은 '현충사'에서 인용됐다.

6 · 25의 노래

'6 · 25의 노래'(박두진 작사, 김동진 작곡)도 '현충일 노래'와 만들어진 배경과 흐름은 비슷하다. 1950년 일어난 6 · 25전쟁 참상을 잊지 말고 자주국방결의를 다지기 위한 노래다.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으로 나가는 이 노래는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 시절엔 부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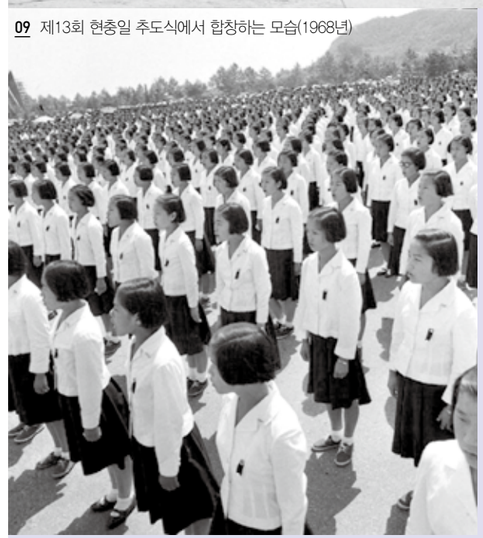
6 · 25전쟁기념행사는 1951년부터 열렸다. 그해엔 '6 · 25 항공총궐기일', 1952년 '6 · 25 멸공통일의 날', 1953년 '6 · 25 북진통일의 날', 1954년부터는 '6 · 25의 날'로 기념식이 열리기 시작됐다. 1962년부터는 대규모 국민행사보다 단체 · 지역별로 6월 25일을 즈음한 때 반공웅변대회, 전시회, 음악회 등이 열려 오늘에 이른다. 6 · 25전쟁 명칭은 초기엔 '사변(事變)', '동란(動亂)', '적침(敵侵)' 등으로 불리다 1957년 '6 · 25사변'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현충일 노래

겨레와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치니
그 정성 영원히 조국을 지키네
조국의 산하여 용사를 잠재우소서
충혼은 영원히 겨레 가슴에
임들은 불멸하는 민족혼의 상징
날이 갈수록 아 그 충성 새로워라



08 제1회 현충일 추도식 참석 관중(1956년)



09 제13회 현충일 추도식에서 합창하는 모습(1968년)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때 '6 · 25사변일'이란 명칭으로 기념일에 넣어 해마다 기념식과 국민안보의식을 높이는 행사들이 열렸다. 2013년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6 · 25명칭에 맞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고쳐져 '6 · 25전쟁일'로 바뀌었다.

이밖에도 '유관순의 노래'(강소천 작사, 나운영 작곡), '안중근 의사 추념가'(김향운 작사, 계정식 작곡), '학생독립운동기념일 노래', '국군의 날 노래', '우리의 소원'(안석주 작사, 안병원 작곡)과 자유와 행복의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자는 노래 '아! 대한민국'도 있다. '안중근 의사 추념가'의 경우 작사가가 김락영이란 기록도 있다.

우리의 소원

특히 '우리의 소원'은 에피소드가 많은 곡이다. 1947년 서울중앙방송국 어린이시간에 발표된 이 노래는 일제강점기 때 여러 문예 분야에서 활동, '천재예술인'으로 불린 안석주가 가사를 썼고 그의 아들이며 서울대 음대 학생이던 작곡가 안병원(1926년 8월 5일~2015년 4월 5일)이 곡을 붙였다. 본래 KBS 삼일절 특집 라디오드라마 주제곡으로 발표된 노래다. 처음 발표 때 가사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 / 꿈에도 소원은 독립~"이었다. 그러나 1948년 8월 정부가 수립되고 남북분단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교과서에 노래가 실릴 땐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가사가 바뀌었다. 남한에서만 불리던 이 노래는 1989년 임수경(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북한을 찾아 부른 후 널리 퍼져 남북에서 불리고 있다. 남한에서 "이 정성 다해서 통일 / 통일을 이루자"는 2절 부분을 북한에선 "이 목숨 다 바쳐 통일 / 통일을 이루자"고 불러 남북 · 한의 가사가 약간 다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15남북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수행원들과 손을 잡고 부르는 등 상징적 의미가 크다. 2000년 5월 서울서 열린 평양어린이예술단 공연 때도 예술단은 마지막 순서로 이 노래를 불렀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평소에도 이 노래를 즐겨 불러 2009년 8월 23일 김 대통령 국장영결식 조가의 하나로 연주되기도 했다. 이천시에 작곡자 안병원이 직접 쓴 악보와 가사를 새긴 노래비가 서 있다.

10



11



10 6 · 25멸공통일의 날 행사장 전경(1952년)
11 6 · 25항공총궐기일 기념행사 합창단 합창 모습(1952년)

한글날의 노래

4대 국경일은 아니지만 의미가 큰 10월 9일 한글날에도 의식곡 '한글날의 노래'가 불린다. 최현배 작사, 박태현 작곡으로 세종대왕의 높은 뜻을 기리는 내용으로 돼있다. 한글날은 1926년 조선어연구회(현재 한글학회)에서 '가갸날'로 지정된 게 최초다. 1928년 조선어연구회에서 '한글날'로 이름을 바꿔 공휴일로 지정됐다. 1982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나 1990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155호)에 따라 공휴일에서 빠졌다. 10월에 몰린 공휴일을 줄이고 연휴에 따른 국민생활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듬해부터 쉬지 않다가 2005년 국경일로 승격됐다. 2012년엔 공휴일로, 2013년부터는 기념일로 지정됐다.

발명의 노래

발명의 날(5월 19일)을 기념하는 '발명의 노래'도 있다. 발명의 날이 만들어진 그해 기념노래가 필요해 상공부 특허국(현재 특허청)이 '발명의 날' 노래를 공모했다. 결과 57점이 응모됐으나 당선작이 없었다. 노랫말 내용이 정부행사의 노래가사로 쓰기엔 부족했던 것이다. 기념행사일은 다가오는데 노래가 없어 큰일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관심 있게 지켜볼 행사인데 다급했다. 정부는 응급조치로 조지훈 시인에게 작사를, 김동진 작곡가에게 곡을 부탁해 노래가 만들어졌다. 당시 특허국이 응모작 57곡을 인쇄해 상공부 장관 등 고위층에 보고한 기록이 발견됐다. '발명의 날 노래 응모집'이란 제목의 이 책은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영동대학교 특허발명공무원학과 교수)에 의해 첫 발굴, 공개됐다. 발명의 날은 1442년(세종 24년) 5월 19일 조선 세종대왕 세자인 문종이 측우기를 고안했다는 '세종실록' 기록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세계 최초 '부부의 날 기념일 노래'도 눈길

설날 노래, 추석의 노래

'설날 노래'(윤극영 작사 · 작곡), '새해의 노래'(정인보 작사, 이흥렬 작곡), '추석의 노래'(강소천 작사, 김성태 작곡) 등도 불리고 있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로 나가는 '졸업식 노래'(윤석중 작사, 정순철 작곡), '생일의 노래'(이금희 작사, 박상엽 작곡)도 넓은 의미에선 의식곡에 들어간다. 생일이면 미국민요 'HAPPY BIRTHDAY TO YOU'를 부르지만 우리에게도 밝고 맑은 가락에 진취적이고 운치 있는 노랫말의 생일축하곡이 있다. 1965년 월간 여성잡지 '여원'사가 공모해 당선된 노래다.

햇살처럼 찬란히 샘물처럼 드맑게 / 온 누리 곱게 곱게 퍼지옵소서 / 뜨거운 박수로 축하합니다 /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부부의 날 기념일 노래

부부의 날(5월 21일)을 기념하는 '부부의 날 기념일 노래'(김종환)도 눈길을 끈다. "니가 보고 싶어 널 만나게 됐고 / 니가 좋아 널 사랑한다~"로 나가는 이 노래는 2절까지 돼있다. 부부의 날은 창원시에서 권재도 목사 부부에 의해 1995년 5월 21일부터 행사를 열어오다 2007년 5월 2일 대통령령 제20045호에 의해 세계 처음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부부의 날은 둘(2)이 만나 하나(1)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필자 소개

마산 중 · 고,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대학원을 나와 1979년 〈한국경제신문〉 기자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몸담아 오고 있다. 특히 '남인수가요제'에서 우수상을 받아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회에 등록(865호), 〈이별 없는 마산항〉 등을 취입했다. '기자 가수'로 가끔 무대에 서면서 글을 쓰고 있다.